



8화제의 졸업생
9년만에 졸업하는 탤런트 박재정 군
"인생도 연기도 모두 경영의 일부"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 합격한 나소라 양
"고시합격 졸업선물 받아 너무 기뻐"

동대신문

금주일언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구를 맺는다.
숙타파타 사품 187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87호 2010년 (불기 2554년) 2월 19일 금요일

Cover Story 약학대학 1차 심사 통과 2월말 최종발표

‘약대 유치 유력’ 동국 중흥 청신호

일산 메디클러스터 중심으로 의생명과학캠퍼스 육성에 탄력 붙을 듯



▲약대 유치에 성공할 경우, 일산 메디클러스터가 생명과학분야 산업과 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로서 성장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

우리대학이 약학대학(이하 약대) 신설(新設) 1차 심사를 통과해 최종 선정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18일 약대신설과 관련해 1차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기권역에서 우리대학과 아주대,한양대,차의과대,카톨릭대를 최종 심사대상 대학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지난 9일 약대 정원배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를 진행했으며 11일까지 서류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대학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을 현장심사, 면담심사에 차질 없이 대응해 약대 유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2차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25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대 유치 두고 치열한 경쟁

최종발표 일자가 가까워짐에 따라, 1차 심사를 통과한 대학들은 약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대학이 신청한 경기도의 경우 1차 심사에만 모

두 9개 대학이 약대 정원 100명의 신설·증원을 두고 경쟁을 벌였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5개 대학은 최종심사를 앞두고 심사준비에 한창인 모습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약대 신설 TFT팀을 중심으로 2차 심사를 대비한 집중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차 심사가 계량적인 지표 위주의 정량평가(定量評價)였다면 2차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 약대 신설 신청서상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고 약대 육성방안 전반에 대한 정성평가(定性評價)가 주요 심사내용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약대 유치 위해 각계각층 지원

우리대학의 경우 조계종과 고양시 등 각계 각층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 약대 유치에 힘을 실어 주고 있어 최종 선정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리대학의 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조계종은 종단차원에서 약대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총동창회가 주최한 동국포럼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과 대학의 합심으로 불교중흥과 대학발전은 물론 약대 유치도 성공적으로 이뤄내자"며 "약대 유치가 안될 경우 사표를 던지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이같은 강력한 의지 표명 외에도 조계종 관계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적으로 약대 유치와 관련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또, 약대를 유치하기 위해 나선고 양시와 지역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우리대학의 약대 유치를 위한 지원단을 발족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양시청 상항실에서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경기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약사회, 시민단체들은 '동국대 약학대학 유치지원단'을 발족하고 우리대학의 약대유치 지원을 결의하는 한편, 고양시의 약대유치 의지를 담은 공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또 고양시는 ▲연구지원시설 지원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 ▲국책과제 유치 시 대응 자금 제공 ▲제약기업 연구소 세계해택 ▲글로벌 제약사 연구소 유치

추진 등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과 검토계획을 내놓는 등 우리대학의 약대유치를 위해 총력(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약대 유치, 동국중흥의 계기로

이처럼 대학들이 약대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약대 유치가 성공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과부가 주관하는 원천 기술개발 사업의 신약개발 부문에만 280억 원이 투자됐고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 BK21사업에도 전국 13개 약대가 대거 참여할 정도로 약대 비중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연구를 수주하면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학교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우리대학의 경우, 약대 유치에 성공하면 일산에 조성 중인 메디클러스터(첨단의료복합단지)가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생명과학분야(BT) 산업과 인재 양성을 선도(先導)하는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대학은 올해 약대를 유치하고 동국중흥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학교분위기에 약대유치가 보태져 중흥의 발판이 될길 기대한다.

정운재 기자 wonder@dongguk.edu

보리수

육신통(六神通)

정병조
윤리문화학과 교수

불교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인사는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손오공처럼 허공을 날고 제갈량처럼 거울에 동남풍을 불러올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성불이라는 어렵고 요령부득의 개념보다 훨씬 친근하고 현실적이라 생각하였다. 그로부터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한답시고 했는데 여전히 신통력과는 십팔팔천리이다. 하늘의 길을 꿰뚫고(天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天耳),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는(他心)커녕 자심통(自心通)도 못했으니 딱한 노릇이다. 그런데 그 신통력의 거짓수가 여섯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불교에서 여섯이라는 숫자는 주로 주관적 기능, 즉 육근(六根)과 그에 맞서는 객관대상 육경(六境)을 가리키는 법수(法數)이다. 따라서 육신통은 물리적 변화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불교적으로 윤색된다는 의미가 강하다. 불교를 몰랐을 때는 원한과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불교공부 이후에는 용서를 배웠다. 불교를 멀리 했을 때는 한없는 집착과 번민뿐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즉 신통력은 불교를 통한 내면의 승화를 뜻한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불자들은 불교를 믿어서 스스로의 세속적 욕망을 채우려 한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며, 한번 올라가면 만수무강토록 버텨야 부처님 영험이 지중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사람에게서는 평범한 바람을 종교행위로 풀어보려는 원망(願望) 심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려는 것은 그것만이 종교의 유일무이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다. 한국불교를 비판하는 상투적 표현 가운데 <기복불교>라는 말이 그것이다. 복을 받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온통 이기적이고 물질적 욕구만을 투영하는 것이 기복불교의 문제점이다. 이런 입장에서 말하면 나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신통력을 얻었다고 자부한다. 젊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많이 느그러워졌고, 제법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줄도 안다. 아마 십지(十地)보살의 계위에서 초지(初地)정도를 밟았으리라 짐작한다.

이제 곧 봄이다. 동악에 또 다시 젊음이 흘러넘치고, 캠퍼스는 도약을 향한 기지개를 편다. 이 계절의 순환 또한 신통력이 아니던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무엇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도 아니다. 옛 철인들은 이를 섭리라고 불렀으며, 불교에서는 다르마(Dharma)라고 부른다. 다르마의 함축 역시 신통력이었는데, 나는 여태까지 괴이한 일만을 신통이라고 잘못 생각해 왔다.

본사사령

- ◇임 정기자 ▲최진아(경영대 경영2)
- ◇면기자 ▲오세진(공과대 화공생물공2) ▲김미로(사법대 국어교육2) - 이상 2월 19일자

금주의 동대신문 Hot Issue

- 2 우리대학, 2년 연속 등록금 동결
- 4 2010년 봄 학위수여식 석·박사 명단
- 6 세계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 교토불교대학
- 8 화제의 졸업생 - 탤런트 박재정, 사법고시 합격생 나소라
- 9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 연구신서 3종 간행
- 12 2010 신춘문예 당선자 3인 인터뷰



더 큰 배움을 시작하는 날

졸업은 배움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당신께 동국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학교를 기억하는 학교가 기억하는 동국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동대신문사

2010학년도 봄 학위수여식 석·박사 명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부 박사학위 수여자 사진을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양해바랍니다.
- 편집자

박사학위

일반대학원 (박사 83명)

△신병삼 불교학과 응용불교학전공 △이범수 불교학과 응용불교학전공 △윤성식 불교학과 응용불교학전공 △곽진희(희경) 불교학과 불교교학전공 △김진현(현석) 불교학과 불교교학전공 △김상건(성기) 불교학과 불교교학전공 △정문용 불교학과 불교사학전공 △이점숙(영석) 선학과 선문학전공 △서왕모(정도) 선학과 선종사학전공 △심준보 인도철학과 인도불교학전공 △김일환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 △정윤길 영어영문학과 영문학전공 △손광수 영어영문학과 영문학전공 △김상원 일어일문학과 일문학전공 △이종수 사학과 한국사학전공 △신광희 미술사학과 미술사학전공 △조현봉(향진) 윤리문화학과 윤리문화이론전공 △서명범 교육학과 교육정책전공 △한미희 교육학과 교육심리·상담전공 △유현자(대법화) 교육학과 교육심리·상담전공 △김동화(환인)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장영수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조수범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정동일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김대권 경찰행정학과 범죄학전공 △김연수 경찰행정학과 범죄학전공 △이승철 경찰행정학과 형사학전공 △김재규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류재형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고강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박지영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마경석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박소영 북한학과 북한학전공 △강경택 무역학과 무역이론·금융전공 △총여명 무역학과 국제통상·지역연구전공 △유승근 무역학과 국제경영·비교문화경영전공 △권미영 호텔관광경영학과 푸드비즈니스전공 △김병철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학전공 △장광익 경영학과 재무관리전공 △옥중경 경영정보학과 정보전략전공 △김신배 물리학과 고체물리학전공 △김인기 통계학과 통계학전공 △박주완 통계학과 전산통계학전공 △김희경 통계학과 통계학전공

학과 전산통계학전공 △고석훈(자광)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박찬식 토목환경공학과 구조공학전공 △전영웅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송기세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유보영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이승하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신원용(진명) 한의학과 내과학전공 △김성재 한의학과 내과학전공 △심성훈 한의학과 내과학전공 △조수원 한의학과 침구학전공 △서지영(호법신) 한의학과 원질의학전공 △김동진 한의학과 소아과학전공 △김운영 한의학과 소아과학전공 △허수연 한의학과 소아과학전공 △권수경 한의학과 부인과학전공 △김경애 한의학과 방제학전공 △김선모 한의학과 방제학전공 △이효승 한의학과 방제학전공 △최성규 한의학과 진단학전공 △이창섭 한의학과 진단학전공 △정현정 한의학과 진단학전공 △박지훈(弘寂) 한의학과 재활의학전공 △이창화 의학과 내과학전공 △정재욱 의학과 가정의학과학전공 △오정훈 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전공 △한경희 전기공학과 전기기계 및 전력전자전공 △서영상 정보관리학과 정보전략전공 △이성중(현가) 정보관리학과 정보전략전공 △김문성 관광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전공 △임정우 관광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전공 △이상규 관광호텔경영학과 푸드비즈니스전공 △이경은(문수심) 관광호텔경영학과 푸드비즈니스전공 △이제안 농학과 작물학전공 △김경희 농학과 유전·육종학전공 △이채진 생물학과 분자생물학전공 △정민아 연극영화학과 영화전공

영상대학원 (박사 2명)

△정동환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전공 △김현영 영화영상학과 영화영상제작(시각 특수효과)전공

석사학위

일반대학원 (석사 229명)

△이자평 불교학과 응용불교학전공 △이창안(철우) 불교학과 불교교학전공 △권동순(원범) 불교학과 불교교학전공 △정유정(상목) 불교학과 불교교학전공 △임현상 불교학과 불교교학전공 △랩브렐 불교학과 불교교학전공 △양운선(승행) 불교학과 불교교학전공 △최경진 불교학과 불교교학전공 △박영란(현서) 불교학과 불교교학전공 △윤연실(선정) 선학과 선종사학전공 △이정은 선학과 응용선학전공 △양영순 인도철학과 인도철학전공 △공정모(상국) 인도철학과 인도불교학전공 △김익근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강승정(수경지)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정혜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박해랑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백성기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 △황수정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권재욱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김태환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이지평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주소사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박미경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서원국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한욱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이미경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안영희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김정희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이은주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박은숙 영어영문학과 번역학전공 △정희정 영어영문학과 번역학전공 △서수경 영어영문학과 번역학전공 △김부미 영어영문학과 영문학전공 △강주영 영어영문학과 영문학전공 △최순정 일어일문학과 일어학전공 △김화용 일어일문학과 일어학전공 △박윤자 한문학과 한국한문학전공 △김원갑 한문학과 한국한문학

전공 △안선경 중어중문학과 중국어문학전공 △배지혜 중어중문학과 중국어문학전공 △박광명 사학과 한국사학전공 △이재철 사학과 한국사학전공 △전덕윤 사학과 한국사학전공 △인용민(법정) 사학과 한국사학전공 △임성욱(명화) 미술사학과 미술사학전공 △신지연 미술사학과 미술사학전공 △맹민순 철학과 동양철학전공 △고은선 교육학과 교육심리·상담전공 △장현중(향월) 법학과 행정법전공 △문광식 법학과 행정법전공 △송승현 법학과 형사법전공 △조경희 법학과 형사법전공 △김상걸 법학과 민사법전공 △안준업 법학과 민사법전공 △장철원 법학과 사회법전공 △이은영 법학과 범죄수사법전공 △김연희 법학과 범죄수사법전공 △장선 정치학과 국제정치전공 △김재현 정치학과 한국정치전공 △김미경 경찰행정학과 범죄학전공 △김관선 경찰행정학과 범죄학전공 △김현동(법화)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서보성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권순규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홍서아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김민년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전공 △한승대 북한학과 북한학전공 △김민지 북한학과 북한학전공 △오기사와라 노부미 북한학과 대외관계전공 △표선실 북한학과 대외관계전공 △조민 북한학과 대외관계전공 △이선화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전공 △윤홍식 경제학과 이론통계전공 △진리 무역학과 국제통상·지역연구전공 △양리우 무역학과 국제통상·지역연구전공 △동빈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전공 △권지훈 호텔관광경영학과 이벤트경영전공 △이광희 호텔관광경영학과 푸드비즈니스전공 △노은수 호텔관광경영학과 푸드비즈니스전공 △김태석 지리학과 지리학전공 △김미지 지리학과 지리학전공 △김정선(정현) 유아교육학과 유아심리전공 △김영란 유아교육학과 유아심리전공 △박수영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서정민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학전공 △조은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학전공 △임성열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박영민 경영학과 마케팅전공 △이은선 화학과 분석화학전공 △양정원 화학과 무기화학전공 △노현

정 통계학과 통계학전공 △김병준 통계학과 통계학전공 △이혜림 통계학과 통계학전공 △안성진 통계학과 통계학전공 △최대용 통계학과 통계학전공 △배재동 통계학과 통계학전공 △이승원 통계학과 통계학전공 △김은영 통계학과 전산통계학전공 △정영진 통계학과 전산통계학전공 △강민수 통계학과 전산통계학전공 △정수정 통계학과 전산통계학전공 △장용문 반도체학과 반도체과학전공 △현유미 반도체학과 반도체과학전공 △조현철 반도체학과 반도체과학전공 △이희택 반도체학과 반도체과학전공 △김대운 반도체학과 반도체과학전공 △이두복 반도체학과 반도체과학전공 △여승진 반도체학과 반도체과학전공 △강희원 반도체학과 반도체과학전공 △조현하(정록) 가정학과 소비자학전공 △김하림 가정학과 의류학전공 △강주익 생명공학과 천연물화학전공 △권영우 생명공학과 분자세포생물학전공 △안재현 생명공학과 분자세포생물학전공 △장찬영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전공 △전병훈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전공 △안선호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전공 △황경훈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박혁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박진현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이상기 토목환경공학과 수자원환경공학 △김아영 토목환경공학과 수자원환경공학 △남은지 건축공학과 건축설비전공 △한재경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박아름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윤중원 건축공학과 건축구조전공 △주시나 건축공학과 건축구조전공 △양남 건축공학과 건축시공전공 △김광철 건축공학과 건축설계전공 △박정근 건축공학과 건축설계전공 △배영호 건축공학과 건축설계전공 △황준호 건축공학과 건축설계전공 △김희영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박하우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김보은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황경환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문혜란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임흥균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정혜숙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신희주 산업시스템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전공 △손경원 산업시스템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

전공 △김소정 산업시스템공학과 산업공학 전공 △이한동 기계공학과 설계및생산전공 △김예진 안전공학과 화공안전전공 △이민재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학전공 △슬가유 게이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학전공 △이승수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전공 △김지범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김동혁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이광진(은봉)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김현철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이지훈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김건민(관음)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김시형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박희수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우수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전공 △오은선 의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전공 △한재우 연극학과 연극학전공 △최학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이경민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이영미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박선영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김선희 미술학과 불교미술전공 △윤은숙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하호준(범윤) 미술학과 조소전공 △김동욱 미술학과 조소전공 △남궁정 체육학과 체육학전공 △조현우 체육학과 체육학전공 △정진기 한의학과 본초학전공 △김성윤 한의학과 본초학전공 △정제도 한의학과 내과학전공 △윤재홍 한의학과 내과학전공 △권은희 한의학과 내과학전공 △황민영 한의학과 내과학전공 △김미경 한의학과 내과학전공 △신경훈 한의학과 침구학전공 △장민기 한의학과 침구학전공 △성현경 한의학과 소아과학전공 △황형주 한의학과 재활의학전공 △이승윤 한의학과 체질의학전공 △양준형 한의학과 안이비인후 피부과학 △김동현 한의학과 안이비인후 피부과학 △김희경 한의학과 안이비인후 피부과학 △정달림 한의학과 안이비인후 피부과학 △송준화 의학과 내과학전공 △최병관 의학과 내과학전공 △강봉근 의학과 내과학전공 △박종석 의학과 정형외과학전공 △안광욱 의학과 정형외과학전공 △권혁부 의학과 피부과학전공 △강해성 전자상거래협동과정 전자상거래 기술 △최상민 전자상거래협동과정 전자상거래 관리 △조형국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백준호(웅산)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윤기훈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곽철현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정재환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홍승현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이창우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강근봉 전기공학과 디지털통신 및 신호처리전공 △정재엽 전기공학과 전기기계 및 전력전자전공 △김태호 전기공학과 전력공학및대체에너지응용전공 △김근 전기공학과 전기전자재료 및 고전압파라자마전공 △박선호 식품자원경제학과 농업경영학전공 △김민지 관광호텔경영학과 푸드비즈니스전공 △김동효(법경) 산림자원학과 환경생태학전공 △남택호 산림자원학과 환경생태학전공 △신동규(명덕) 산림자원학과 산림이용전공 △김철영 생명과학과 동물분류 및 생태학전공 △량요민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전공 △박한조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전공 △최정운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전공 △정경희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전공 △김배영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전공 △이혜린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전공 △임효신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전공 △김심해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전공 △이유미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전공 △최동선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전공 △하주연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전공 △이송영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전공 △김동희 연극영화학과 연극전공 △박미경 연극영화학과 영화전공

불교대학원 (석사 24명)

△백성호 불교학과 선학전공 △천정권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강인선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이상실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정용섭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이지옥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안정권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서성근(현수)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남정숙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강형광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오영선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이복희 불교사회복지학

과 사회복지학전공 △최윤경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김영석(홍서)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이남숙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김정순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황현숙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손혜진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김정희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옥정미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노준민 생사의례학과 생사의례전공 △이주연 생사의례학과 생사의례전공 △강형구 생사의례학과 생사의례전공 △김영태 생사의례학과 생사의례전공

영상대학원 (석사 19명)

△변성광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전공 △김수진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시나리오전공 △윤다현 영화영상학과 영화기획전공 △이진옥 영화영상학과 영화기획전공 △김호세 영화영상학과 영화기획전공 △권영미 영화영상학과 영화시나리오전공 △권순경 영화영상학과 영화영상제작(촬영)전공 △고임표 영화영상학과 영화영상제작(편집)전공 △박영삼 영화영상학과 영화영상제작(편집)전공 △강나영 영화영상학과 영화이론전공 △박설영 영화영상학과 영화이론전공 △고성혁 멀티미디어학과 영상공학전공 △윤민철 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음악전공 △김민경 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음악전공 △이동민 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음악전공 △신동민 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음악전공 △김종현 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음악전공 △차지훈 멀티미디어학과 게임제작전공 △박성화 멀티미디어학과 게임제작전공

경영전문대학원(MBA 49명)

△심기원 General MBA(Full-time) △구민희 General MBA(Full-time) △차영후 General MBA(Full-time) △송매근 General MBA(Full-time) △황석찬 General MBA(Evening) △김상유 General MBA(Evening) △김민숙 General MBA(Evening) △김보경 General MBA(Evening) △박경원 General MBA(Evening) △김동환 General MBA(Evening) △이현욱 General MBA(Evening) △정상규 General MBA(Evening) △박현태 General MBA(Evening) △전종국 General MBA(Evening) △강진영 General MBA(Evening) △유승일 General MBA(Evening) △김용주 General MBA(Evening) △권오용 General MBA(Evening) △이상민 General MBA(Evening) △허부강 General MBA(Evening) △유진 General MBA(Evening) △전병건 General MBA(Evening) △조미성 CO-MBA(Evening) △정성전 CO-MBA(Evening) △홍재우 CO-MBA(Evening) △안형조 CO-MBA(Evening) △곽경희 CO-MBA(Evening) △장상필 CO-MBA(Evening) △김영석 CO-MBA(Evening) △김희경 CO-MBA(Evening) △이혜경 CO-MBA(Evening) △박인양 CO-MBA(Evening) △심현경 CO-MBA(Evening) △이준호 Entrepreneurship MBA(Evening) △김윤수 Entrepreneurship MBA(Evening) △노현우 Entrepreneurship MBA(Evening) △정영주 Entrepreneurship MBA(Evening) △구숙경 Entrepreneurship MBA(Evening) △강동호 Entrepreneurship MBA(Evening) △김용돈 Entrepreneurship MBA(Evening) △손우준 Entrepreneurship MBA(Evening) △이용준 Entrepreneurship MBA(Evening) △이석준 Entrepreneurship MBA(Evening) △김태완 Entrepreneurship MBA(Evening) △구민희 Entrepreneurship MBA(Evening)

△김정택 Entrepreneurship MBA(Evening) △조재문 Entrepreneurship MBA(Evening) △이행중 Entrepreneurship MBA(Evening) △연정원 Entrepreneurship MBA(Evening)

행정대학원 (석사 61명)

△심민정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이성노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이완구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류정란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상길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안금숙(묘청)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정국진 안보행정학과 군사전략전공 △정경근 안보행정학과 군사전략전공 △김혁래 안보행정학과 군사전략전공 △김화용 북한학과 북한체제전공 △임성환 안보.북한학과 국방획득전공 △송상현 안보.북한학과 군사전략전공 △권오훈 안보.북한학과 안보정책전공 △차원양 안보.북한학과 통일정책전공 △조병석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강성복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유희민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김광호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박정진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박상선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이지연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장희수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안두순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김홍훈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김성수 공안행정학과 소방행정전공 △김경택 공안행정학과 민간경비전공 △윤종수 공안행정학과 산업보안전공 △이승태 공안행정학과 산업보안전공 △한나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이진모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박동명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장보선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채정환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강현순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김성일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문수라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김민진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최영준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이윤주(愿心)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박연실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최성훈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강미라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장연옥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서명철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홍희순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조상희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김옥진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고애경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김영미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김영문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김경숙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조순태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임우희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김문숙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권현우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배수연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손경화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조형오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서종분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김현주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경영대학원 (석사 4명)

△이상범 경영학과 조직인사관리전공 △최진찬 경영학과 국제경영전공 △오기민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시스템전공 △신현일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교육대학원 (석사 76명)

△전현진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이영혜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양정하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신혜숙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이정희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주형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이유기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최성애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최경미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백선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송순애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박주리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강동익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변경미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경진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사교육전공 △차윤경 교과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문경숙 교과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김윤남 교과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소인선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박자영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신미선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최보미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숙진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박윤희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준영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민희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진호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남종선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현경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전영민 교과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박은주 교과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유정 교과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정재원 교과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장은연 교과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안지영 교과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박동희 교과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최현미 교과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세진 교과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황신혜 교과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혜정 교과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신진숙 교과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정혜윤 교과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민영 교과교육학과 중국어교육전공 △손미정 교과교육학과 중국어교육전공 △기상아 교과교육학과 중국어교육전공 △안정주 교과교육학과 중국어교육전공 △오연주 교과교육학과 중국어교육전공 △정이연 교과교육학과 일어교육전공 △장효리 교과교육학과 한문교육전공 △박호경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송규진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임선택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최정연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이경아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최유선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이선희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표준영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윤덕균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조진숙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김성덕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문지혜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문세정 교과교육학과 컴퓨터교육전공 △김영주 교과교육학과 컴퓨터교육전공 △양소정 교과교육학과 컴퓨터교육전공 △손영희 교과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나혜영 교과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전보정 교과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어예든 교과교육학과 체육교육전공 △오승태 교과교육학과 체육교육전공 △홍석규 교과교육학과 체육교육전공 △최현민 교과교육학과 체육교육전공 △김경록 교과교육학과 체육교육전공

국제정보대학원 (석사 18명)

△채성일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김철수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이후기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김헌덕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박성철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황재훈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최규훈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최병훈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이상무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최해경 영어통번역학과 통역전공 △김미진 영어통번역학과 번역전공 △김혜경 영어통번역학과 번역전공 △박윤 IT-Business학과 IT-Business전공 △강수현 IT-Business학과 IT-Business전공 △허경석 IT-Business학과 IT-Business전공 △김제희 IT-Business학과 IT-Business전공 △박진 IT-Business학과 IT-Business전공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17명)

△최광호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박광운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신용호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김연주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은효경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이재용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차상진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배재성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윤만석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한송이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정진호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공미영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문성혜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최제시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이우기 인쇄출판학과 출판잡지전공 △방태원 인쇄출판학과 출판잡지전공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34명)

△윤현영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전공 △서한숙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전공 △박연숙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김정란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방남수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강민숙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김정임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김하린 문예창작학과 소설.드라마전공 △전성현 문예창작학과 소설.드라마전공 △조미라 연극예술학과 공연예술전공 △서봉준 연극예술학과 공연예술전공 △김종문 연극예술학과 공연예술전공 △신원미 연극예술학과 공연예술전공 △최민선 연극예술학과 영화영상예술전공 △안희숙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전공 △김성훈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전공 △정영서(탄봉) 불교예술문화학과 한국음악전공 △안현선 불교예술문화학과 문화재전공 △고재식 불교예술문화학과 문화재전공 △김경열 불교예술문화학과 문화재전공 △조지연 불교예술문화학과 문화재전공 △송현정 불교예술문화학과 문화재전공 △이진경 불교예술문화학과 문화재전공 △이장원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이혜림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강소진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김민향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최유진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조계숙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신성미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최혜경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곽남희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박보영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진태경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연예술전공 △서봉준 연극예술학과 공연예술전공 △김종문 연극예술학과 공연예술전공 △신원미 연극예술학과 공연예술전공 △최민선 연극예술학과 영화영상예술전공 △안희숙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전공 △김성훈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전공 △정영서(탄봉) 불교예술문화학과 한국음악전공 △안현선 불교예술문화학과 문화재전공 △고재식 불교예술문화학과 문화재전공 △김경열 불교예술문화학과 문화재전공 △조지연 불교예술문화학과 문화재전공 △송현정 불교예술문화학과 문화재전공 △이진경 불교예술문화학과 문화재전공 △이장원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이혜림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강소진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김민향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최유진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조계숙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신성미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최혜경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곽남희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박보영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진태경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국제정보대학원 (석사 18명)

△채성일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김철수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이후기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김헌덕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박성철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황재훈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최규훈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최병훈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이상무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최해경 영어통번역학과 통역전공 △김미진 영어통번역학과 번역전공 △김혜경 영어통번역학과 번역전공 △박윤 IT-Business학과 IT-Business전공 △강수현 IT-Business학과 IT-Business전공 △허경석 IT-Business학과 IT-Business전공 △김제희 IT-Business학과 IT-Business전공 △박진 IT-Business학과 IT-Business전공

2010년도 봄 학위수여자
출자금 환불안내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원들의 2010년도 봄 학위수여를 축하드리며, 출자금을 다음과 같이 환불해드리고자 합니다.

다 음

1. 환불방법 : 본인계좌로 계좌이체
2. 자세한 내용은 2월 18일(목) 이후 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dgucoop.dongguk.ac.kr>
3. 문의전화 : 02-2260-8948

2010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기념품 제공안내

생활협에서는 2010년도 신입생들을 위하여 입학식 당일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바랍니다.

1. 일자 : 2010년 2월 23일(화)
2. 장소 : 장충체육관, 생활부스



김영순
화학과 교수

달하나 천강에

디지털 시대의 나

디지털 시대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컴퓨터나 인터넷만 잘 쓸 줄 알면 되는가? “세상에 달같이 먼지였을까? 달이 먼지였을까?” 하면 결론이 나지 않는 부질 없는 일이라 여기지만 소위 서양 과학자들은 “당연히 달이라고 조물주(造物主)가 세상을 만드느라 옛세 동안 바빠 움직이고 있는 입장에서 언제 알을 품어 깨기를 기다리겠느냐”고 한다. 이런 생각의 발상(發想)이 우리의 “빨리 빨리”가 아닐까? 그렇다면 동양적인 사고의 “달같이 먼지?”라는 말은 답답하기 힘든 얘기일 것이다.

가끔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을 만나면 “제가 바빠서요. 조금 시간나면 찾아 뵈게요”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 한가해지시나요?”라고 반문하며 “한가하긴 해요” 하며 머쓱해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 아날로그적인 세계로 처음 출발과정과 중간과정에서 서서히 변화해가며 결과를 예측하는 상식선의 단계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라는 이름으로 정보량은 더 많아지고 정보는 컴퓨터나 인터넷에 더욱 의지하게 된다. 아직은 컴퓨터 같은 인간이 아니라 감정이 변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아날로그적인 만남으로 도움만 얻는 디지털적인 사이보다 자연스러운 사이가 오래가고 편하지 않을까?

화학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자체로 보면 디지털이지만 그 과정은 틀림없는 아날로그 현상이다. 실험실에서는 그 과정이 재미있고 좋아서 밤을 새며 ‘다음에는 어떤 반응을 시켜볼까?’라는 꿈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이 바로 달걀을 품어 예쁜 새끼를 얻으려는 동양적인 사고가 아닐까?

어려서부터 일일이 지시하고 그대로 말 잘 듣던 착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거야”라고 하는데 막상 부모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끈 떨어지듯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고 만다. 이때부터 부모는 일일이 간섭하지 말고 영원한 후원자가 될 연습을 해야한다. 매일 아침 전철역에서 뛰어오며 “우리학교는 너무 높아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아주 좋은 학교고 우리건강을 책임져주는 고마운 캠퍼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또, 시간의 여유가 있는 대학 생활동안 책과 가까이 하며 항상 관념(觀念)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길 바란다. 더불어 아날로그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정보량이 아무리 많아져도 수용할 수 있는 자신의 그릇을 만들기를 바란다.



강성웅 전자공학과 79졸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지원 본부장

동문칼럼

특허 전문가 육성

오늘날 우리사회는 개방경제 체제 속에서 날로 급변하며 국제화 개성화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매출이 줄고 연구개발(R&D)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특허(特許)전쟁이 본격화 되어 특허 문제가 크게 부각(浮凸)되고 있다. 이는 현대 산업경제가 지식집약화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제의 기술의존도가 높아졌고 기술자제의 독립적인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기술을 가진 자만이 성장하고 국가경제가 발전 할 수 있으며 그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노력에 따라 발전 속도와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세상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하게 되며 그 결과를 여러 형태의 권리로 보호 받고자 하는데 이 것이 지적 소유권인 것이다.

그 대표적 권리의 하나로서 특허를 말할 수 있으며, 그래서 특허문제는 기술의 보호

를 법적차원에서 확보하고 합리화 하자는 개념인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강력한 특허 권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특허출원 전문가가 요구된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특허 클레임(Claim) 뿐만 아니라 자사의 권리를 주장하여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상에서의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상 전문가. 또한 국내외 특허소송을 소송 경제성에 입각하여 운영 할 수 있는 소송관리 전문가 등이 필요하다.

특허 전문가라 하면 흔히 변리사나 변호사를 들 수가 있으나 기업의 기술개발 현장에 밀착(密着)하여 업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에서 특허 전담자가 필요하며, 이 전담자 육성의 1차적 책임은 기업이다. 기업은 특허 업무의 특성상 전문지식, 어학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특

허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한다.

기업에서의 특허담당자 역시 단순한 특허출원 업무에서 벗어나 기업경영에 직결되는 특허영역을 확보하려는 자기개발과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 에서도 교양강좌 수준의 특허인식 제고 보다는 이공계 대학에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등 확대 강화해 나가서 특허전문가로서의 소양을 형성(形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젠 특허를 따내기 위한 각 나라와 각 기업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특허 없이는 미래 없다”라는 특허전쟁 시대에 구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특허전문가를 육성하려는 의지와 이에 따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2008년에 이어 지난해 국제특허 출원(出願)건수가 세계 4위에 올랐다. 그래서 지금이 지식재산 강국, 특허 강국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전략적 노력의 강도를 높여야할 시점이다.



박예슬
교육학과 1학년

학생칼럼

비효율적인 영어트랙제

올해 초(初), 신입생들은 혼란(混亂)에 빠졌다. 바로 올해부터 생긴 영어트랙제(制) 때문이다.

우리 대학교가 새롭게 영어트랙을 개편한 취지는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영어트랙제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았다.

먼저 핵심 교양 강좌선택권이 대폭 축소(縮小)되었다. 영어트랙에 핵심 교양 대체 과목이 신설(新設)됨에 따라, 영어트랙 A 학생의 경우 핵심 교양은 영어강좌로만 두 강좌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영어 핵심교양 강좌의 수 자체도 적을뿐더러, 두 강의만 들어야하기 때문에 영어트랙 B, C 학생의 경우에도 핵심 교양 강좌선택권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영어 강의의 질적인 문제도 있

다. 단계적이지 않고 급속하게 영어강좌수를 늘리자 일부 강의에서는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 아직까지 일부 교수진의 영어 강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완벽한 영어 강의를 하는 강의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없어 학습 의욕이 저하(低下)되었다.

마지막으로 과잉 영어 강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 영어보다 국어로 수강(受講)해야 더 이해하기 쉬운 강좌가 있는데, 영어로 강의를 진행되어 교수와 학생 모두 힘들어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불교와 인간’ 강의의 경우, 힌두어가 자주 쓰이는 수업이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지만, 영어 강의를 하면서 오히려 내용의 깊은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도어

뿐만 아니라 평소 사용하던 불교 용어들 또한 영어로 번역해 공부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주었다. 교수진 또한 국어로 가르치는 것 보다 훨씬 수업 효율이 떨어지게 됐다.

따라서 효율적인 영어트랙을 위해 핵심 교양 강좌선택권 확대와 각종 영어 강의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적절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 교수나 원어민 교수를 적극적으로 영입(迎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강의를 영어 강의로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고민이다.

천천히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영어트랙제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을 학교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사·진·에·세·이



Enlighten your love for humanity!
(마음속에 감추어진 인류애를 드러내 세상에 전파하자)

108리더스 캄보디아 봉사단 제공

2010학년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신고 기간
2010년 2월22일(월) ~ 3월12일(금) (3주간)
2. 신고 대상
가.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학부, 대학원)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나. 2010년도 편입생, 입학생 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대학원의 연구, 관리자 과정 / 복학과 동시 휴학자는 신고제외
※ 2010년도에 전역한 학생은 2011년도에 전입신고
3. 신고 장소 : 학생서비스팀 예비군 연대본부 (본관 3층)
4. 신고 시 자참물 / 관심사항
가. 전역증 (군번, 주특기, 입영일, 전역일 등 신고서 작성 시 필요)
나. 미등록자는 대학 예비군에 편성불가
다. 신고는 예비군 연대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U-drims(학사정보-병무-전입신고)란에 하시면 되며 반드시 예비군 연대본부에 승인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함
6. 기타 상세 문의 : 예비군 연대본부 ☎ 2260-3047-8
※ 휴학기간 중 '09년도 지역에서 부과된 훈련 미필자는 전입 신고 시에 필히 훈련 미필시 여부를 담당자에게 통보바람.
※ 대학 직장 예비군에 미신고시 동원훈련(2박3일) 또는 동미참훈련 (36시간~20시간)을 받아야하나 학생예비군으로 신고 시에는 1일(8시간)훈련을 받으면 됨.
※ 반드시 신고하여 면학분위기에 기여함은 물론 법적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장

현대제철 인사팀장 초청 취업특강

현대제철 인사팀장 초청 취업특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석 바랍니다.

- 대 상 : 문과대학생 및 취업에 관심있는 모든 동국인
- 일 시 : 2010. 2. 22(월) 15:00 ~ 16:30
- 장 소 : 명진관 A104
- 강 사 : 현대제철 심의랑 인사팀장
- 내 용 : 취업트렌드, 현대제철 인재상 및 채용설명 등



문과대학장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10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과정명	분 야	세 부 과 정 명
특별 교육	스포츠	골프배니저먼트/티칭지도사, 어린이스포츠산업 전문가
	예술·문화	실장구해과정(임운반, 선반), APP(예술테라피전문가), 미우르메다, 이트마켓&아트테크, PIA인간조사사(합정)최고전문가, 통신선교수의 사랑학반, 한국전통무용(입문)
	교육·철학	TESOL, 영리회고지도사, 명상심리기치유사, FNT(사상제)와 치비명상전문자격과정
	경제·경영	FX(외환) 재테크과정, 부동산재테크, SCAE국제비즈니스 커리어전문가
자격증	대령교섭	기요전문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 북아트지도사, 색채심리지도사, 어린이한자지도사, 주산활용수학교육사, 한문지도사
	민간자격/국가공인	두뇌개발교육지도사, 국제어문미테라피스트DIY창업반, 선요기·선무도, 약용식물관리사, 지문평가사, 표현예술치료(1~6단계)
불교	한국방과후 교육연합회	방과후 수확지도사 양성과정, 방과후 수확지도사 중등과정, 방과후 과학실습지도사, 방과후 한국사논술지도사
	불교전문반	일교사상, 기신론사상, 참선수행, 반야중관사상, 변화현대사상
교양	불교	불교무용, 불교상담사, 불교영어, 불교의사실용반, 불교인문기초과정, 다석회·선회, 불교정통꽃꽂이, 불교미술(불화), 비교종교, 참선수행
	동양철학	기문정명학, 기문정명학전문가, 사주명리학, 사주명리학전문가, 명리학, 생명학, 생활풍수, 육인, 육림전문가, 인상개운, 허락이수, 한공풍수
Cyber	문학예술	기요명학, 고전전통무용, 기본현문, 시낭송전문가, 이미지메이킹을 통한 자기개발, 문인화, 시군자, 서예, 전통민화지도사, 전통민화실기, 전통생활자수, 한지활
	자격을	주산활용수학교육사
	동양철학	명리학, 생명학, 타로카드

접수기한 2010년 2월 26일(금) 강의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및 접수처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02)2260-3728~3730

접수 및 납부방법 ① 인터넷 수강신청 후 가상계좌 이체 ② 인터넷 수강신청 후 방문 카드결제 (BC, 국민, 삼성, 신한)

http://edulife.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사설

지금은 법관의 독립을 강화할 때

김도현
법학과 교수

정치권 일각에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의 법관임용과 법관재임용제의 부활을 들고 나오면서 우리 사회는 법관(法官)의 독립을 둘러싼 논쟁으로 연일 시골벽적이다. 집권세력의 주장에 깔린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세상물정 모르는 젊은 법관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것이고, 혹여 그럼에도 입맛을 거스른 판결을 내리는 법관은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이다.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법관들로 사법부(司法府)를 채우고 싶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떠올리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정권의 눈 밖에 난 판결이 내려지면 다수의견에 가담했던 법관들이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정권의 눈에 드는 판결이 내려지면 소수의견을 제시했던 법관들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던 일을 80년대 초까지 흔히 볼 수 있었다. 정치권으로부터 사건담당 판사에게 행사되던 직·간접적 영향력도 당시에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정치권에 의한 노골적인 간섭은 급격히 줄어드는 대신,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법관독립이 문

제되기 시작한다. 시국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관을 시골 지원으로 좌천시키고, 이러한 인사의 난맥상을 신문에 기고한 다른 법관을 또 좌천(左遷)시키는 따위의 일들이 발생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이런 현상이 줄어들긴 했으나 사법부 내의 고질적인 조직구조 탓에 법관의 독립이 온전히 담보될 수 없는 환경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사법연수원을 갖 수료한 어린 법관을 배석판사로 임명하여 선배 법관의 지휘 하에 기성체제에 길들이고, 가파른 위계적 서열구조 속에서 승진과 보직 인사를 무기삼아 대다수 법관을 중도퇴직에 이르게 하고 있다. 법관재임용제거의 사문화된 지 오래지만 굳이 이 제도를 동원할 필요도 없이 그에 비견되는 등가장치를 줄곧 유지해 온 셈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관에 대한 견제장치의 확대가 아니라 법관이 헌법(憲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판결하고 정년에 이르기까지 법원에 남아 그 소임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권당이 대표하는 국

민의 의사가 사법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법부란 바로 민주주의가 타락에 이르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소수자·약자가 탄압받지 않아야 참된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거니와 다수의 독재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은 현대 정치체제에서 결국 사법부의 몫이다. 법원은 법치주의의 보루(堡壘) 이전에 민주주의의 보루이다.

집권여당에서 들고 나온 법관재임용제는 민주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헌법에 규정된 법관재임용제의 사실상의 사문화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 쌓아온 헌법관행의 하나인 것이다. 한편 법조경력자의 법관임용 주장은 그 의도가 무엇이건 법관의 독립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사법부 내의 고질적인 조직구조를 허무는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사법부 내 피라미드 체제는 법률가의 길로 갈 들어선 신참을 체제내적 법관으로 순치(馴致)시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사설

2천 동국인의 졸업을 축하하며

눈 깜짝할 사이 지나버린 대학생활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채 올해도 어김없이 동국인 2천여 명이 낯선 세계로 한 발을 내딛는다. 졸업생들은 그동안 교수, 선후배, 동기들과 추억을 쌓아온 교정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슬프면서도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마음에 설레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졸업의 의미는 정든 교정을 떠나는 학생들 자신은 물론, 이들을 가르친 교직원들도 어느 해보다 착잡(錯雜)할 때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두려움과 설렘으로 시작될 그들의 첫 발을 가로막는 것은 '취업대란'이다. 올해 채용시장 사정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국(時局)이 어려운 때에 정든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먼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쉽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쉽게 좌절할 수 있지만, 동국인이란 자부심과 젊음의 열정을 믿고 다시 한 번 도전해보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또,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현대 사회는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가치와 존재들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 집단도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퇴보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학사복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것이다. 학제의 최후 단계를 이수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두가 누릴 수 없는 일종의 가치다. 학사복은 이를 증명하는 권위의 표식(表式)이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있었고, 부모형제들의 정성어린 뒷받침이 있었으며,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향시(恒時) 기억하며 늘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졸업생들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언제 어디서든 '동국인'이란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며, 사회에서도 '동국'의 이름을 빛내길 바란다.



메아리

청년 노조(勞組)가 나아갈 방향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88만원 세대'에서 저자 우석훈은 “지금 88만원 세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바리케이트와 그들이 한 발이라도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짱돌이지, 토플이나 GRE(미국 일반대학원 입학 시험)접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20대들을 88만원세대라고 정의하고 그들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한경쟁이 아니라 88만원세대의 협력(協力)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들을 대변할 '청년유니온'이라는 노조가 다음달 창립할 예정이다. 우선은 아르바이트 생활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즉 '알바생'의 노동권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 단체가 자리를 잡는다면 스스로 나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젊은 층에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

다. 10~30대 아르바이트 생활자만 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推算)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하다. 단지 자기계발에 소홀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것이라는 편견(偏見)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영업자 고용주에게 고용된 '알바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노조의 탄생은 '알바생'으로 대변되는 88만원 세대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88만원 세대라는 현실에서 우석훈이 제시한 해법이 첫 발을 디딘 것이다. ▲하지만 청년 노조의 활동이 아르바이트 생활자들의 근시안적인 상황 개선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알바생'들에 대한 편견을 깨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최저임금도 지켜

지지 못하는 편의점이나 매장 등에서부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유니온'이 해야 할 일은 이렇듯 단순하지 않다. 그들의 시작은 다소 거창할지는 모르지만 해야 할 일은 만만치 않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겠다는 목표야 그들의 행보(行步)가 당당해지길 바란다. ▲청년 노조의 탄생을 축하하며, 한 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그들의 임무가 생각보다 막중하다는 것이다. 우석훈은 “88만원세대를 넘기 위해서는 세대 내의 경쟁에서 세대 간의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노조가 단순히 가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말처럼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만평



검화되지 못하는 내 청춘

백선아 기자 amy@dgu.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유훈우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정웅재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동국108리더스 모집 안내



1. 지원자격
 - 1) 대상 : 2010년 3월 현재 5,6학기 재학생
 - 2) 성적 : 총평점평균 3.3 이상
 - 3) 어학능력 : 아래의 기준 중 한가지 이상을 취득한 학생
TOEIC(600점), IBT(57점), TEPS(480), JLPT 3급(400점), HSK 6급(299점), OPIC(novice mid), TOEIC SPEAKING(LEVEL 4), 영어트랙 교육과정 B+이상
 - 4) 기타 : 동국108리더스 수료시(2011년 6월)까지 휴학을 하지 않은 자
2. 선발인원 : 총120명
3.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4. 운영계획(인증조건)
 - 1) 리더십 기초교육: 리더십 기초캠프 참가 및 자기개발 교과목 3강좌 수강(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비즈니스 협상스킬, 인간관계향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갈등관리, 창의력 개발, 진로설정과 경력개발, 취업실전특강, 여성 리더와의 대화, 여대생의 자기개발과 진로탐색 등)
 - 2) 리더십 특 강: 학생경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특강 3회 수강
 - 3) 리더십 전문교육: 국제인증관련 리더십 교육 2회 수료
 - 4) 리더십 심화교육: 리더십 이론 및 토론학습(2010년 2학기 1학점 강좌) 수강
 - 5) 리더십 사회봉사: 단체사회봉사 40시간
 - 6) 리더십 해외봉사: 저개발국가로 해외봉사
 - 7) 리더스 클럽활동: 리더스 행사 참여 및 멘토링 2회
 - 8) 성적 : 총평점평균 3.5이상
 - 9) 어학능력 : TOEIC(750점), IBT(87점), TEPS(633), JLPT 2급(700점), HSK 9급(339점), OPIC(intermediate mid), TOEIC SPEAKING(LEVEL 6) 중 1개 취득
5. 제출서류
 -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분량은 각 2page 이내로 작성)
 - 2) 자격증 및 성적, 어학능력, 사회봉사 시간 확인 위하여 사본 제출
 - 3) 신청기간 : 2010년 2월 22일 ~ 3월 5일(금) 17시 까지
 - 4) 신청방법 : 제출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후 u-Drims에 입력하고 한 부 출력하여 취업지원센터 리더십담당에게 제출
 - 5) 서류합격자 발표 : 2010년 3월 11일(목) 18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 예정
 - 6) 선발자 특전
 - 1) 리더십 교육비 전액 교비 지원
 - 2) 리더십 해외봉사 경비 70% 교비 지원(본인 30% 부담)
 - 3) 수료시 총장명의 "동국108리더스" 인증서 수여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02-2260-3052, <http://leadercenter.dongguk.edu>

2010 신춘문예(新春文藝)당선자 3인 인터뷰

동국문학, 2010 신춘문예에도 빛나다!

편집자 주

2009년 동국문학이 신춘문예 문학 전 분야에 걸쳐 모두 8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화제가 됐다. 2010년에도 그 기(氣)를 이어 받아 3명의 당선자가 탄생했다. '문학사관학교'라는 평을 받은 동국문학의 전통(傳統)을 이어 비상하는 작가로 활동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10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 당선자 정선아 동문 인터뷰



“기대하지 않은 편지에 뜻밖의 답장 받은 기분”

“여행은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샘이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여행을 통해 동심(童心)을 이해하고 동심으로 돌아가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는 작품을 내놓았다고 한다. 여기 한국판 안데르센이 있다. 바로 이번 조선일보 동화부문에 당선(當選)된 정선아(문창08졸)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에게 당선소감을 묻자 “기대하지 않은 편지에 뜻밖의 답장을 받은 기분”이라고 말하며 “지난 여름 캄보디아 해외봉사 경험 덕분에 신춘문예 동화부문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여름,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가게 된

그녀는 “하루에 한 끼조차 먹을 수 없어 굶주리는 캄보디아의 아이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나 자유가 없는 한국의 아이들이 상충은 다르지만 둘 다 너무나 가여웠어요”라며 늘 이 아이들을 위해 미약하지만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한다. 해외 봉사 이후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그녀의 자전거에 달려있는 수많은 자물쇠를 보고 그녀는 문득 소재가 떠오르게 되어 탄생한 작품이 “누가 내 자전거 좀 훔쳐주세요”다. “제 주변의 조카나 아이들을 살펴보면 학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섯 개는 기본이고 심지어 주변 친구들과 자신의 학원 개수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녀는 “누가 내 자전거를 좀 훔쳐주세요”에 이러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았다. 자물쇠를 매단 채 달리지 못하는 자전거는 학원가를 전전공공(戰戰兢兢)하는 요즘 어린이들을 상징하고 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 심사위원인 이금이 아동 청소년문학가는 “요즘 아이들로 대표되는 주인공의 심리나 행동에 대한 묘사(描寫)가 생생하고 자연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번 신춘문예 당선 소식은 아이들을 위해 동화를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이 기록해 신겨서 주신 선물이라고 겸손을 보이는 정선아 동문. 가방 속에 항상 동화책을 넣고 다니며 읽을 정도로 동화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그녀는 “아이들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따뜻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계속 쓸 것임을 약속했다. 그녀만의 파스한 글 솜씨로 경쟁 속에 지쳐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그녀의 행보(行步)를 기대해본다.

백선아 기자 amy@dgu.edu

2010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자 김진기 동문 인터뷰



“일흔 셋에 불태운 문학에 대한 열정”

‘여성 문학의 대표적 작가 박완서,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를 자랑하는 과울로 코엘료, 칼의 노래 저자로 유명한 김훈’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마흔이 넘은 나이에 활발한 문학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물들과 같이 나이는 불문(不問)이라는 것을 증명해준 김진기 동문(국문 64졸). 김진기 동문은 73세의 나이로 신춘문예에 당선돼 최고령 당선자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당선소감으로 “지금껏 마음속 문학에 대한 애착(愛着)을 잊지 않았던 것이 당선까지 이끌어왔던 것 같다”며 웃어보였다. 김진기 동문은 3년 전부터 문학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대학 국문과를 졸업한지 40년이 훌쩍 지난 후에 문학에 대한 꿈을 펼친 셈이다.

진기 동문은 칠천산 칠장사에서 우연히 사자와 꿈을 합쳐놓은 듯이 생긴 차우차우를 보고 시상(詩想)을 떠올리게 됐다고 한다. ‘칠장사에 왜 이 개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시상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약자의 비애’를 담았다. 그래서일까, 그의 시는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서정적 울림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이는 김진기 동문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듯하다. 그는 문학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를 쓰려면 더더욱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시를 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으로 ‘투혼(투혼)’을 꼽았다. 그는 “작품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단어 하나에도 혼신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동문은 ‘차우차우’를 쓰기 위해 칠장산에 네 번이나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진기 동문은 “많은 것을 경험해야 살아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진기 동문은 “많은 것을 경험해야 살아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재학시절 동기들과 명동, 종로 등 학교주변의 음악 감상실을 찾다니며 그곳에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러한 경험 하나하나가 시를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김진기 동문에게 신춘문예 당선의 영광을 안겨준 시는 바로 ‘차우차우’다. 김

이슬비 기자 beeya@dgu.edu

2010 동아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자 임나진 양 인터뷰



“침체된 연극 시장 살리는 것 내 몫”

“무대로 옮겨진 희곡(戯曲)이 관객과 호흡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것에 강하게 끌렸다” 201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자 임나진(국어국문4) 양은 일주일 만에 연극을 3편 이상을 볼 정도로 연극광이었다. 그녀는 “연극을 보기 위해 접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용돈을 모았다. 연극 관련 포털사이트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무료 연극도 꼭 챙겨보았다”고 말했다. 이렇듯 그녀 가까이에는 항상 연극이 있었다. “연극이라면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잡식성(?)’ 덕분에 신춘문예에 당선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밝은 미소와 함께 당선(當選) 소감을 밝혔다. 임나진 양은 평소 연극을 즐겨보며 막연하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희곡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춘문예에 도전해보자는 마음을 먹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희곡을 쓸 것인지,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당교수인 박광현 교수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신춘문예에 도전하게 됐다

고 한다. 그녀는 “막상 신춘문예에 도전하니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며 “보다 나은 글을 내고 싶어 마감 직전까지 고민하다 우체국의 서터를 내리는 우체국 직원을 사정해 겨우 접수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신춘문예 당선작 ‘문 없는 집’은 20년 전 헤어진 남편의 어머니인 치매노인을 모시고 사는 여인 ‘임양수’를 주인공으로 한 비정상적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희곡이다. 임나진 양은 “혈연 없이도 가족 간에 따뜻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나진 양은 “신춘문예에 당선돼 기쁘지만 더 좋은 글을 써야 할 것 같아 부담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따뜻함이 묻어낸 글을 쓰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현재 침체(沈滯)돼 있는 연극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 젊은 세대의 책임과 의무라고 믿고 있는 임나진 양 대한민국 연극계의 한 획을 그을 그녀의 작품을 기대해 본다. 최진아 기자 gina@dgu.edu

어느 날 여인이 먼저 얘기하더라.
“스님이 머리를 기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머리를 깎을까요?”

불교신문 독자들이 열광한
법광 스님의 ‘에세이禪’ 단행본으로 출간!

석객

禪客

천방지축 개구쟁이 스님의
솔직담백한 선방 이야기!

집착하지 말라고 한다. 사랑도 다 집착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면 보통사람들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스님이라면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 웃음이 너무 천진스러워서……
신경림(시인)

스님을 만나고 산문(山門)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날 밝고 아름답다. 이 책에서 그 이유를 알았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복을 한 아름 받고서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법광 스님(선운사 주지)

법광 스님의 글에는 ‘솔직한 수행자’의 향기가 있습니다. 꾸미지 않은 이야기에서 백적간두진일보의 치열함도 발견합니다. 스님과의 인연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성수(불교신문 기자)



4x6판 양장본 | 256쪽 | 값 10,000원

머리의 발견 제1탄

이 시리즈는 현대인의 마음에 동물이 뭘 미래 콘텐트입니다.

02)2260-3483, 2264-4705

2010년 2월 19일